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5. 3. 19 (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으로 치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통해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접경호를 통해 신변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렇듯 테러 위협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나경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다’라고 인식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발인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 차례 테러 행위를 당하였고 윤석열 내란사태의 ‘수거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실질적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